저소득층 청소년의 튜터링 프로그램 이용 경험

이민숙*, 양소남**, 추교선***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The Using Tutoring Program Experience of Low-income Youth

Minsook Lee*, Sonam Yang**, Gyoseon Choo***

Dept. of Social Work Sahmyook University*

Dept. of Social Work Kyonggi University**

Dept. of Social Work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수집은 2013년 6월부터 8월 중에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와 문서를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9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의 경험은 존중받는 나, 성장하는 나, 미래를 준비하는 나로 분석되었다. 튜터링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가 높아졌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진학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튜터들을 닮고자 하는 마음에 장차 자신도 튜터가 되어 청소년들을 만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목표,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튜터링 프로그램, 학업성취도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low-income youth participated tutoring program. From June to August 2013,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9 youth and documents were used to collect data.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of how young people experience and respected, and growing, preparing me for the future analysis.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tutoring has been increased positive social relationships was able to form a bond. Participants for further study and career began to worry seriously, like a tutor who come to resemble the tutor himself the goal is to meet the youth was found to be preparing to establish

Key words : Tutoring Program, Self Esteem, Academic Achievement, Social Relationships, Target

1.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 입시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학은 필수진학기관 같이 되어가고 있으나 이

들의 생활환경에 따라 학업성취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2], 학업성취는 청소년기의 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

Received 12 January 2014, Revised 13 February 2014
Accepted 20 Febr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So-Nam Yang(Dept. of Social Work
Kyonggi University)
Email: snyang@kyonggi.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은 높은 학생에 비해 우울, 불안, 위축, 학교생활 부적응,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3].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은 부모의 별거, 이혼, 사망 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학대,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4], 이런 환경적 요인은 청소년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적응유연성(Resilience)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례 또한 보고되고 있다[5][6][7]. 적응유연성을 높여 저소득층 청소년의 부정적인 경험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다.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청소년의 불안, 우울, 공격성 같은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하며[8],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희망 요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9].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이들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튜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튜터링은 일대일 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적인 입장에서 튜터가 튜티인 학생의 학습 및 연구에 대해서 지도·조언을 하며, 과제를 부여하는 일종의 개인지도를 의미한다. 또한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 및 조언할 수 있다[10][11].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업적 측면이나 튜티의 자기효능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12][13],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빈곤의 대물림을 단절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이 보고되고 있으나[14] 이들이 참여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은 차상위 계층이하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다. 대체로 저소득층 거주 지역 환경은 높은 학대 위험요소로 작용하며, 저소득은 안녕감, 능력, 학업성취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한 자원 부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학업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15] 학교성적 저하와 학교적응의 문제가 나타난다[16][17]. 이들의 학업중단률은 비

저소득 계층 학생들 보다 두 배나 높다[18][19][20].

저소득층 가정배경은 일상생활 만족도가 낮고 부모가 양육하는 청소년 보다 발달지체나 정서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21][22]. 또 역할모델의 부재로 인해 친사회적 행동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 사회적 반항심과 함께 부정적 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23][24][25][26].

반면에 저소득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아동에게 역할모델의 존재는 이들의 학교적응 및 낙관적 미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보육사나 후원자 등과 같이 친숙한 대상을 역할 모델로 삼을 때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27].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진로와 학업과 관련하여 역할모델이 있을수록, 진로포부수준도 높아진다[28]. 저소득 계층 청소년 가정 내에 적절한 역할모델이 부재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성인의 지지는 역할모델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

조손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인 경우에도 학교 적응유연성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대관계는 매개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두 변인은 교사의 무관심이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9].

그러나 저소득층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이 다 부정적인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잘하는 힘이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다[30][31][32]. 유연성은 질병이나 우울, 역경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을 뜻하는데 어려운 환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강점을 회복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적응을 보인다[33][34][35].

저소득층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보호해주는 요인에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개인적 보호요인은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사회적 성향, 계획성, 책임감, 문제 해결능력, 자기유능감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가족 관련 보호요인은 가족구성원의 따뜻한 지지와 결속력, 민주적인 양육태도 등이다. 사회 환경적 보호요인은 지역사회 성인의 지원, 또래집단의 지지, 학교와 프로그램 활동 참여 등을 할 수 있는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사회적 지지가 있다[36][37]. 사회적 지지는 개

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물질적 도움이 포함된다[38].

튜터링 프로그램은 1인의 스승과 함께 1인 또는 1-5인의 학생이 만나 개인의 관심과 수준을 배려하여 학습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튜터링은 학습자에게 충실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현재 지식수준과 관심에 맞추어 수업을 시작하고 학생의 학습증진에 그 목적을 둔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예가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서구에서는 특수아동과 학습 성취도가 취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튜터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보고된 바 있으며[39],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튜터링이 아동의 자존감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인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40].

한편 튜터 프로그램과 유사하나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위한 개입보다는 심리사회적 개입에 보다 중점을 둔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의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멘토링 프로그램은 성인역할 모델의 존재, 자존감, 자기유능감, 미래에 대한 진로인식,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지지, 학교에서의 흥미 영역에서 유의미하다[41][42]. 직장인이 멘토와 맺은 좋은 관계는 멘티의 직업유지와 경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실시된 바 있다[43].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며, 청소년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연구 요인들을 개념화하고 수량화하여 변수관계를 규명하기 보다

는 실제로 튜터링을 통해 학습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내부자적 관점으로부터 직접 겪은 대로의 경험과 이들 경험의 본질에 대해 이해 하고자 한다.

2.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은 표본추출의 적합성과 충분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였다[44][45]. 참여자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차상위계층 가정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에서 생활하며 00종합사회복지관에서 6개월 이상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며,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본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으로 제한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은 총 9명으로 <Table 1>과 같다. 이들의 가족형태는 저소득 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과양 후 시설에서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인해 지각, 결석, 약속 불이행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가족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Sex	Age	Grade	Period	Family Type	
A	F	18	H2	2009.3-	Single mom	Mother, E.sister
B	M	18	H2	2009 -	Single mom	Mother, Y.sister
C	F	17	H1	2010.3-	Single mom	Mother, E.sister
D	M	18	H2	2009-	Single daddy	Father, Y.brother
E	M	15	M2	2012.12-	Orphanage	-
F	M	18	Out of School	2010.2-	Grand parents F.	Grand parents
G	F	17	H1	2011.8-	Low income F.	Parents, E.brother
H	F	15	M2	2012.9-	Grand parents F.	Grandmother, Aunt
I	F	19	H3	2012.9-	Low income F.	Parents, E.sister

2.2 자료수집방법

문헌 검토를 통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지침서를 작성하였고[46], 이를 토대로 2013년 6월부터 7월 하순까지 심

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평균 9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참여자들의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인 면까지 관찰하고 현장노트에 정리하여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자료 분석

자료수집과 동시에 지속적 비교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먼저 인터뷰 내용을 필사하였고, 튜터링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주제를 파악하고자 녹음내용을 들으면서 필사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읽었으며, 현장노트를 참고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추출하였다[47]. 그리고 문장을 줄 단위로 읽으며 참여자들의 주요 경험을 텍스트화 하였다. 다음으로 분리된 텍스트를 맥락과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하여 주제별로 나누어 구조화 하였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경험들을 재구조화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인터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 과정, 연구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였다[48]. 연구 참여는 참여자의 자발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연구과정에서 녹음과 관찰이 이루어지나 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고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비밀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 과정 중 언제라도 참여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3. 연구결과

지속적 비교분석방법으로 분석된 연구결과는 세 가지 핵심주제인 존중받는 나, 성장하는 나, 미래를 설계하는 나로 분석되었다.

3.1 존중받는 나

참여자들은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수업은 참여자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3.1.1 나만을 위한 튜터링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조절하면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튜터링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뽑았고, 이와 같은 분위기가 자신이 흥미를 갖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얘기했다. 또한 자신의 학습능력에 맞게 진행되는 튜터링을 통해서 학교나 학원에서와는 달리 튜터링 시간 동안 자신의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튜터링은 학원하고 다르게 1:1이잖아요..제가 원하는 시간에, 날짜에, 선생님하고 맞는 시간 정해서 하니깐..숙제도 원하는 만큼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제 편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참여자G)

내 선생님이랑 1:1이니까 궁금한 것도 잘 물어볼 수 있고...모르는 것 있으면 학원선생님께 카톡 보내면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 볼 수 없잖아요(참여자C)

3.1.2 자율적인 과제

튜터 청소년들은 정규 학교수업이나 학원에서 부여되는 일괄적인 과제와 달리, 자신의 개별 성적이나 성향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과제의 량을 조절하고 있었다.

과제는 조금 자율적 이예요. 제가 풀 수 있는 만큼 풀라고 그래요. 수학은 좀 제가 잘 못 푸니까 풀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참여자D)

숙제 안 할 때는 “숙제 안했어? 다음에 꼭 해와. 이래요. 제가 계속 안하면, “OO아 숙제 해야지”해야 되. 해야지, 선생님이 해오라고 한거잖아.” 이렇게 그냥 달래듯이. 그거 때문에 또 미안해졌고 또 해오고 화내시지는 않았는데, 슬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달래듯 하니까,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참여자A)

제가 영어단어를 너무 못 외우겠어서 막..선생님이 좀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참여자H)

과제량이 적지만 그래도 다 못 해 갈 경우에, 튜터는 청소년들을 깊이 나무라지 않고 현재 학습수준이 어느 단계인지를 평가한 후 과제 양을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제를 해오지 않았을 때, 튜터선생님이 ‘슬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제를 하게 된다고’ 말하는

청소년과 선생님이 숙제를 해 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 같다’는 진술 속에서 튜터가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있어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1.3 열성적인 지도

일주일에 1회나 2회 정도 지도를 받는 튜터링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에 청소년들은 스스로 공부하다 모르는 문제를 접하게 되면 바로 튜터에게 전화하거나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하곤 한다. 튜터들은 질문에 따라 전화로 지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풀이과정을 메모하여 카톡으로 전송해 학생들의 학습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정 급하다 하면 그냥 전화로 해 갖고 그냥 물어보죠 (참여자D)

잘 안 풀리는 문제 있잖아요. 답지를 봐도 안 되는 것들, 그때 선생님께 물어보면, 풀이과정을 짹 써서 그걸 찍으셔서 다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참여자C)

3.1.4 친밀한 분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수업은 대부분 친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데, 이와 같은 수업 방식은 튜터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만들고,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애기를 하면 덮어놓고 수업만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벼워지죠 무겁지는 않죠. 그니까 과외 수업[튜터링]을 한다 하면은 ‘아, 오늘 과외 가서 수업을 듣겠구나’, 그게 아니라 뭐 그냥 누구 만나러 온다는 생각으로 오는 편이라 불편하지 않죠 (참여자E)

선생님이 좀 젊으시니까 공감 많이 가고 그냥 선생님 이랑 애기가 잘 통하는 것 같고, 가끔 속이 시원할 때도 있고 (참여자 I)

또한 튜터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그들의 학교생활 등을 나누며 격의 없는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업 중에 나눈 대화를 통해 청소년과 튜터들은 공

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형 고등학교 때 애기도 많이 해주시고, 학교 애기 하고 그래요. 형 군대 갔을 때 애기도 해주시고, 내가 학교에서 어떤 애가 뭘 하다가 걸려 가지고 창피하게 됐다 뭐 이런 애기를 하면 형이 웃고 맞장구 쳐주시고 그래요. 학교 선생님 욕 하시면 같이 해주시고 하니까... 좋죠. 그냥 같이 웃고 그러니까. (참여자B)

3.1.5 지지적인 태도

튜터들은 청소년의 성적이 향상되었을 때는 청소년들에게 기쁘다는 표현으로 그들의 성취에 대한 보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완전 좋아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했다”고, “진짜 고맙다”고, 막, 쌤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고마운데 말이죠 (참여자A)

모의고사 있고 나서 다음 수업 때 말씀을 드렸죠. 그 선생님이 “그래 잘했어!” “잘했다”고 하시고.. (참여자H)

반면 튜터의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정을 시키고 오히려 격려하는데, 이러한 일관적인 행동이 튜터들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0점 넘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말해요 몇 점 맞았다고 그럼 그냥 머리 쓰다듬으면서 좀 더 열심히 하래요 (참여자E)

중간고사 때 영어 성적이 그냥 그렇게 나왔는데 그냥 “괜찮아. 답에 열심히 하면 되니까. 다음번에는 프린트 보고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하고 카톡이나 문자로도 격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참여자G)

이와 같은 튜터들의 지지와 격려는 청소년들에게 더 열심히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점수를 올려야겠다. 제 점수가

오르면 형도 좋아하시잖아요. 성적으로 보답해야죠. (참여자B)

3.2 성장하는 나

타인으로부터의 존중받음을 경험하면서 청소년들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관리능력,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으로 설명된다.

3.2.1 자존감 향상

청소년들은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과제를 하기도 하고, 다음 튜터링을 계획하는 등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생활의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지속적인 성공의 경험은 튜티들로 하여금 뿌듯함과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계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을 제가 좀 낭비하는 편이에요. 제가 집에 있으면 공부를 아예 안 해요 근데 튜터링을 하다보니깐, 하기 싫어도 숙제라는 게 있으니깐. 어떻게든 해야 하잖아요. 안 하면 선생님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미안하기도 하고...그러다보니 시간낭비를 안하게 되더라고요. 놀지 않았다는 거, 내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참여자C)

이렇게 꾸준하게 다닌 건 처음 이예요. 원래 학원 다녀도 3개월 밖에 못가고 그랬는데...선생님이 잘 알려주셔서 흥미가 생기고...이제는 공부시간을 노는 시간을 피해서 따로 정한다든지, 놀기에 앞에서 공부하고 간다든지...그렇게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G)

저소득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들의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으나[49],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청소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지지는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2 학업성취도 향상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등 참여자

들의 노력은 전반적인 학업성취도의 향상으로 연결되었다.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급 등수나 수능 등급 등의 성적향상을 보고했다. 참여자들은 나름, 목표를 갖고 튜터링을 시작했고, 프로그램을 통해 이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간고사 때 보다 이번 기말이 반에서 10등정도 올랐어요. 집중력이 별로였는데 이거 하면서 옆에서 쌤이 봐 주니까 이렇게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참여자G)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원래 읽는 거랑 독해를 잘못했는데 원어민이랑 아예 말도 못하고 못 알아들었는데 요즘엔 좀 알아들어요. 이제 원어민이랑 대화도 잘되고요.(참여자E)

튜터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한 튜티들은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감은 튜티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저 번에 쌤이랑 막 열심히 했을 땐 20점 올랐었어요. 뿌듯했어요. 더 노력해서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 했어요. (참여자 H)

모의고사 성적이 좀 많이 올랐어요. 한 1·2등급 정도 올랐고, 영어도 한 2등급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아! 하면 되는구나. 잘했다!’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은 것 같아요. (참여자I)

3.2.3 관계의 형성

튜터는 현재 대학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된다. 이들 또한 대학생활과 튜터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에 따르면 항상 자신의 피곤함 보다는 튜티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열심히 수업을 지도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청소년들에게 형, 누나, 오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분이 안 좋아도 선생님이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가끔 선생님도 되게 피곤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수업할 때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요...선생님과의 관계가

형 같아서 친근해서 좋아요 (참여자D)

이런 저런 조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업도 가르쳐주고 나한테 저기 튜터 선생님이 아니라 누나죠 누나. (참여자F)

튜터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튜터들은 새롭게 맺어진 신뢰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튜터링에 참여하게 되었고, 튜터들의 따뜻한 대화와 보살핌은 청소년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형이 저를 되게 잘 대해 주셔가지고 저도 열심히 하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저랑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공감 되는 것도 좀 많고(참여자B).

쌤이 “이번에는 열심히 하자.” 하시고, 엄청 열심히 가르쳐주시고...그래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보니 한 30~40점 올랐어요 (참여자A)

그리고 이와 같이 튜터링 중에 튜터와 나누는 대화의 시간은 평소 대화 상대가 그리 많지 않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있음을 참여자B를 통해 알 수 있다.

평소에 그렇게 대화 할 사람이 많이 없잖아...그냥 좋은 것 같아요. 대화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참여자B)

3.2.4 긍정적인 유대감 형성-학교, 친구, 가족

일종의 개인지도인 튜터링 경험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튜터링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한 내용을 학교 수업시간에 다루게 되면 손을 들어 질문에 답을 하는 등 자신 있는 모습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아는 게 나오니까 좀 더 자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손도 들어서 대답을 하게 되고...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해주시고 하니까...학교생활이 즐거워졌어요 (참여자H)

이와 함께 소극적인 성격으로 말을 잘 안하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청소년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자기주장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문제를 풀 때 튜터 선생님이 질문하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 같은 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확실히 애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도 같고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참여자D)

청소년들이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성적이 오르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뿐 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가족도 튜티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엄마가 예전처럼 말썽 안 부리니까 되게 좋아하셔요.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셔요. 속도 안 썩이고 좀 좋아졌어요. 뭐 부탁 잘 들어 주고 제가 필요한 거를 말하면 웬만하면 다 해 주셔요. (참여자B).

학원 다니면 많이 빠지고 그랬어요. 일주일은 안가고 엄마랑 그 때마다 싸우고 그랬는데, 튜터링은 꼬박 가니까 엄마도 좀 놀라워하시는 것 같아요. (참여자G).

그리고 이러한 가족들의 변화에 튜티들 또한 긍정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족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 미래를 설계하는 나

3.3.1 진로에 대한 탐색

참여 청소년들은 튜터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튜터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듣기도 하면서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딱 자기 가고 싶은 길을 정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말을 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어떤 애들은 나보다 더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은 일을 딱 정해 가기도 하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참여자C)

3.3.2 진학에 대한 고민

또한 이들 중에는 대학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진학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 청소년도 있었다. 대학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튜터들은 가능한 한 자신의 대학생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들의 진학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교 생활이 궁금해서, 보통은 제가 먼저 물어봐요 선생님! 가끔씩 여기에 와서 전공서적 풀고 계실 때... 시험기간이면 "어떤 거 시험보시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제가 물리 쪽을 좋아해서, 형은 전자전기 그쪽이니까, 비슷하죠 다 거기서 거기 때문에 그냥 공감 가죠. 그니까 그 과를 비슷한 거를 가야겠다고 저도 목표를 잡고 있고 거기에 있으신 분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참여자D)

3.3.3 미래의 튜터가 되기 위한 준비

참여자 중에는 튜터들의 모습을 통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들은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미래에 자신과 같은 청소년과 나누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도 튜터 한 번 해보고 싶다거나 음...제가 대학생이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우선은 최대한 그 학생하고 좀 잘 지내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런 공부하는 거나 혹은 이제 애들이랑 좀 오랫동안 지내야 하잖아요. (참여자C)

특히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참여자 D는 튜터와 만나면서 자신의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며 자신의 이러한 변화를 성인이 되었을 때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제가 어울리는 게 좀 편하지 않았었는데 이거 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교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튜터] 대학 과정에서 했을 때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누구를 가르

친다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자D)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 및 진학에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었고, 튜터에 대한 모델링을 통하여 미래에 성인이 된 후 지금의 튜터와 같은 모습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과 변화를 주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족기능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청소년들은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 및 성장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목표를 세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만을 위해 제공되는 맞춤형 튜터링, 자율적으로 부여되는 과제, 튜터들의 열성적인 지도, 친밀한 분위기, 그리고 튜터들의 지지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는 청소년들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었고, 이러한 존중받음은 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고, 학업성취도가 높아졌으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학교, 친구, 가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와 더불어 진학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튜터들을 닮고자 하는 마음에 장차 자신도 튜터가 되어 청소년들을 만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변화와 이러한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를 위한 정책 및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 중심 실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감은 청소년들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

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통해 청소년들은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부모의 애정과 감독,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49]를 고려하여 이들 보호자의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이 각 사례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튜터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튜터는 튜티의 성장 및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튜터와의 튜티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튜티에 대한 튜터링의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에서와 같이[50], 튜터의 역할에 따라 튜티들은 이들을 자신의 역할모델로 삼기도 하고 이들에 의해 도전과 자극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튜터링 프로그램 시작 전 튜터 역할 수행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문회의 등이 요구된다. 적절한 교육과 자문의 제공은 튜티들의 지속적 참여와 성공 경험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 참여한 튜티들은 대부분 1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로, 튜티들의 성적향상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튜터링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이라든지, 튜티와 튜터를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제공 등과 같이 향후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청소년들은 튜터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튜터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어머니 등 기타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나 기타의 보호자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말을 포함해 늦은 시간까지 취업 활동을 할 경우와 가족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가 어려워 질 수 있다. 그리고 보호자 역시 문제를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튜티가 제기하는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튜티중심의 개별화된 맞춤형 수업이 튜터프로그램에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튜티의 가정의 상황과 욕구를 중심으로 사례관리가 요구된다.

다섯 번째로, 튜터링과 같이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대가 요구된다.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서 실시하고 있는 튜터링은 본연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보급 및 확대된다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탄력성을 높여 이들이 청소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여섯 번째로, 청소년들이 환경에 구애 없이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장과 내실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주변에 청소년 수련관 등의 청소년 시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관이 청소년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중심의 다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기능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저소득 청소년의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예방하고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튜티의 경험만을 탐색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구결과가 보여 주듯이 튜터링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튜티들이 튜티에게 공감하고 지지적인 태도로 참여자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며 헌신적이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데 기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튜터링을 통해 튜터와 튜티가 상호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튜티와 튜터 모두를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Kyeong-Sang Lee, The Influence of Poverty on College Entrance of Korean Youths, Youth Welfare Research, Vol13, No, 3, pp. 21-280, 2011.
- [2] Kwang-Hyuk Kim, Effect of Family Income Levels on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 Adolescents : with a Special Focus on Comparisons between Child's Developmental Stage, Vol. 21, No.

- 2, pp. 35-65.
- [3] Hyun-Seun Park, The Impact of School-Based Mentoring Program on Youths in Low-income Families, School of Social Welfare, Vol. 23, pp. 101-122, 2012.
- [4] Dong-SIG, Kim, Experience of Parent-related Negative Life Events, Mental Health, and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 40, No. 3, pp. 218-226, 1997.
- [5] Garnezy, N.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4, No. 4, pp. 416-430, 1991.
- [6] Werner, E. E., Ruth, S. S.,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7] Katherine E. W & H. Bruce, F., Community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resiliency: Considerations and future Direction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16), Vol. 37, No.6, pp. 489-498, 2001.
- [8] Pil-Soon No; Hye-Mi Yun, The Effects of the Economic Strain, Family Function & Social Support on Middle School Students' Problem Behaviors, School of Social Welfare, Vol. 12, pp. 23-46, 2007.
- [9] Han- Ik Jo, The Mediation Effect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2, pp. 65-87, 2009.
- [10] In-Soo, Kim, .A Case Study on the Activity of a Learning Community : Based on a Peer Tutoring in K-university,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3, No. 3, pp. 1-32, 2010.
- [11] Sin-young Lee, A direct comparison of college students'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the application of a peer tutoring program in an introductory physics class,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3.
- [12] Sin-young Lee, A direct comparison of college students'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the application of a peer tutoring program in an introductory physics class,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3.
- [13] Chae-Yeon Hwang, The effects of tutoring program on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14] Hyun-Seun Park, The Impact of School-Based Mentoring Program on Youths in Low-income Families, School of Social Welfare, Vol, 23, pp. 101-122, 2012.
- [15] Kwang-Hyuk Kim-Yu-Rim Cha, Process Analysis of Household Poverty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Korea Youth Studies, Vol. 18, No. 1, pp. 29-51. 2007.
- [16] Jae-jung Ryu, The factors which affect school resilience centering on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adolescence. .Myongj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7.
- [17] Kwan, A.,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The Role of commitment, Th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2013.
- [18] Brooks-Gunn, J. & Duncan. G. J.,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 pp. 55-71, 1997.
- [19] Coulton, C. J., Korbin, J. E., Su, M., & Chow, Community level factors and child maltreatment rates. Child Development, 66(5), Vol.64, No. 4, pp. 1262-1276, 1995.
- [20] Hyen-Soo, Kim-In-Soo, Oh, Exploration of protective factors for school resilience in low-income middle school students: A focus on academic, social, and affective resilienc,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2, PP. 917-933, 2012.
- [21] Jae-jung Ryu, The factors which affect school resilience centering on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adolescence. .Myongj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7.

- [22] Kwan, A.,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The Role of commitment, Th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2013.
- [23] Kyeng-Hee Kim·Hye-Jung Hwang,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Their Parents' Acceptance and Rejection in Low Income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1, No. 1, pp. 12-26, 1998.
- [24] Nam-Joo Jung,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Problematic Behaviors and Self-esteem of Child in Low-income Family, Korea Journal of Art Therapy, Vol .11, No. 1, pp. 153-173, 2011.
- [25] Hyeok Noh, A study on the supportive welfare policy for self-reliance of the poor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1, No, 1, pp. 95-117, 2004.
- [26] Hyo-Suk, Jo·Jin- Suk Yi, Treatment of low-income children reading program decreased depression and self-esteem, emotional enhancement effect on the ability .Children's Institute in 2008 Korea Conference Paper Presentation Poster,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31, 2008.
- [27] Mi-Young Sin, A Study on Role Models, School Adjustment and Future Time Perspective of 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 master's degree thesis, 2012.
- [28] Jeong-Seon, Lee, The relations of Role Model,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nd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on the career aspiration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29] Jae-Jung Ryu, The factors which affect school resilience centering on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adolescence, Myong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7.
- [30] Garnezy, N.,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4, pp 416-430, 1991.
- [31] Werner, E. E., Ruth, S. S.,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32] Katherine E. W.; H. Bruce, F., Community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resiliency: Considerations and future Direction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Vol. 37, No. 6, pp. 489-498, 2001.
- [33] Garnezy, N.,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4, No. 4, pp. 416-430, 1991,
- [34] Carl F. R., Lewis E. Patterson., Promoting resilience in at-risk childre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pp.368 - 373, 1996.
- [35] Katherine E. W.; H. Bruce, F., Community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resiliency: Considerations and future Direction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Vol. 37, No. 6, pp. 489-498, 2001.
- [36] Katherine E. W.; H. Bruce, F., Community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resiliency: Considerations and future Direction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Vol. 37, No. 6. pp. 489-498, 2001.
- [37] Seung- Hwan Oh,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ce in Poverty: Exploration of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1, pp. 181-205, 2006.
- [38] Kesser, R. C., Price, R. H., Wortman, C. B.,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6, pp. 531-572, 1985.
- [39] Hock, M. F., The Effects of an after school tutoring program on the academic performance of at-risk students and students with learning difficulty. Remedical and Special Education, 2001.
- [40] King, K. A., Vidourek, R. A., Davis, B. & McClellan, W., Increasing self-esteem and school connectedness through a multidimensional mentoring program.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2, No. 7, pp. 294-299, 2002.
- [41] Hyun-Seun Park, Academic support for low-income youth mentoring program effectiveness research, Seoul, Community Mental Health

Research Institute, Samsung, 2007.

- [42] Hyun-Seun Park, The Impact of School-Based Mentoring Program on Youths in Low-income Families, School of Social Welfare, Vol. 23, pp. 101-122, 2012.
- [43] Ragins, B. R., Cotton, J., & Miller, J. S., Marginal mentoring: The Effects of type of mentor, quality of relationship, and program design on work and carrer attitud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56, No. 5, pp. 1177-1194, 2013.
- [44] Murphy, E., Dingwall, R., Greatbatch, D., Parker, S. & Watson, P.,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 Review of Literatur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Vol. 2, No, 16, pp. 1-275, 1988.
- [45] Miles, Huberman, Data managemenc and analysis methods. In N, K, Denzin & Y. S. Lincon(eds.),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998.
- [46] Marshall, C., Rossman, G. B.,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10.
- [47] Marshall, C., Rossman, G. B.,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10.
- [48] Murphy, E., Dingwall, R., Greatbatch, D., Parker, S. & Watson, P.,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 Review of Literatur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Vol. 2, No, 16, pp. 1-275, 1988.
- [49] Yang-Mi Lim, Exploration of variables effecting on poor adolescents" self-resilience and self-esteem : Focusing o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quality of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s, Korea Home and Education, Vol. 25, No. 2, pp. 147-167, 2013,
- [50] Ragins, B. R., Cotton, J., & Miller, J. S., Marginal mentoring: The Effects of type of mentor, quality of relationship, and program design on work and carrer attitud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56, No. 5, pp. 1177-1194, 2013.

이 민 숙(Lee, Min Sook)

- 1982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문학사)
- 2005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13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 E-Mail : lightj40@hanmail.net

양 소 남(Yang, So Nam)

- 1995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 1997년 2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사회사업학 석사)
- 2006년 7월 : 영국 노팅엄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사회사업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사회복지실천, 질적연구방법론

· E-Mail : snyang@kyonggi.ac.kr

추 교 선(Choo, Gyo Seon)

- 2002년 2월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4년 8월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
- 2013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4년 1월 ~ 현재 :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관심분야 : 지역사회복지 실천, NPO 연구

· E-Mail : sun9885@hanmail.net